

수원 화성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유산
World Heritage
Convention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유네스코와 유산 UNESCO & HERITAGE

유네스코는 유엔(UN)에서 만든 국제기구이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인류에게 중요한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다.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호주의 세계유산



Great Barrier Reef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Sydney Opera House



Greater Blue Mountains



Cariton Gardens

한국의 세계유산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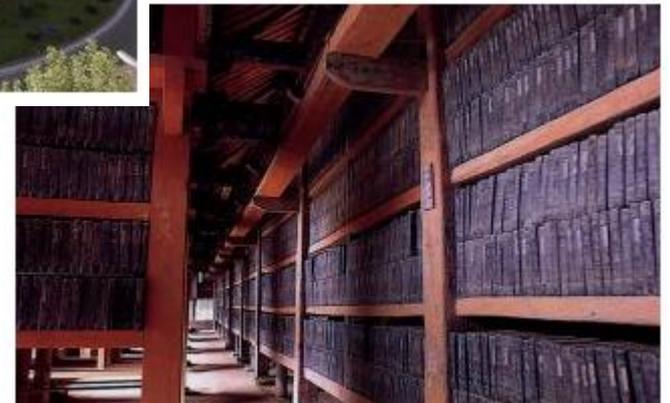
석굴암과 불국사



화성



조선왕릉



해인사 장경판전

화성은 세계인이 보호해야 할 세계문화 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 의의와 효과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성(Hwaseong Fortress)



서북각루에서 내려다본 화서문 일대

화성(華城)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이다.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방어 목적으로 조성하였다. 1794년 2월에 시작하여 2년 반에 걸친 공사 후 완공되었다. 성곽 전체 길이는 5.74km이며, 높이 4~6m의 성벽이 130ha의 면적을 에워싸고 있다.



수원 화성 전체 모형

특징

- 처음부터 계획되어 신축된 성곽
- 거주지로서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
- 전통적 축성기법에 동양과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 사용(거중기, 도르래 등)
-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줌
- 화성은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 변화, 기술 발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양식의 성곽
- 성벽, 4대문, 각종 방어용 시설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음
- 한국전쟁 등으로 파손된 곳은 <화성성역의궤>를 통해 엄격한 고증에 따라 복원됨

화성의 역사적 배경



영화 <사도세자> 중에서, 2014

수원 화성은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그 축성의 근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김 정치 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다. 또한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도세자(1735-1762)는 조선왕조 제21대 왕인 영조의 둘째 아들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왕위를 계승한 후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성으로 옮기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화성을 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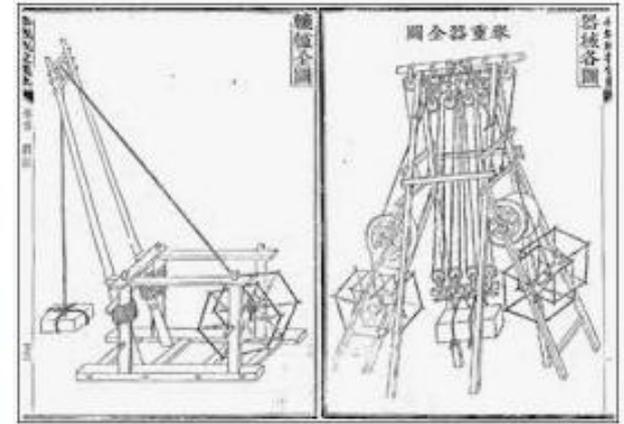
영조(1694-1776)와 정조(1752-1800)

화성의 건축

화성은 실학파의 대표인 정약용(1763-1836)에 의해 설계되었고, 건축물은 1764-1796년 사이에 완공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 상세하게 묘사된 거중기, 도르래를 비롯한 다른 특수한 건축 장비들은 화성 건축을 위해 디자인 되고 제작되었다.



거중기(수원 화성)



거중기도면(화성성역의궤)

수원 화성은 한국 건축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도시계획, 조경과 그에 관련된 예술에 있어서도 몇 세기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 화성은 극동의 군사 방호 건축물의 전형이며 군사 건축의 역사적 표본이다. 수원 화성은 군사, 정치, 상업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요새들과 구별된다.



생각거리: 사도세자 이야기

사도세자의 큰 체격은 영아기 때부터 남달랐다고 한다.
“체격이 좋다”, “머리가 크다” 등 신하들의 덕담은 이어졌지만 영조에게는 근심거리였다.
42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그런 아들의 건강과 비만은 영조의 큰 걱정이었다.
“세자는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병이 자주 생기는 것 같다.
세자가 숨을 쉴 때 들리는 소리가 마치 바람소리 같더라.
너무 살이 썩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점점 미움으로 변져...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 하고 걸음 걸이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글을 이해하는 것은 뛰어난 데, 뚱뚱해서 얼굴 생김새가 별로라 답답할 뿐이다.”
한번 생긴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불러 경전 공부를 멀리하고 무예와 잡학에 관심을 두는 세자를 미워하게 된다.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군대놀이와 병서를 즐겨 읽고 약 15세부터 청룡도나 쇠몽둥이를 자유롭게 다루 무인 기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문치주의를 갈망하던 영조에게겐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영조는 서른 한 살에 왕이 되어 52년 재위기간 동안 ‘애민정책’, ‘탕평책’을 펼친 훌륭한 왕이었으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임오화변’이라는 비극을 남겼다.



영화 [사도 The Throne], 2014

역사채널 e- 사도세자 죽음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e5c_FAF5MMo
설민석의 [사도] 버림받은 왕자, 사도세자 <https://www.youtube.com/watch?v=qcGmThWrrvA>

관심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세계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문화유산 선정**을 위해 다음 6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5.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전통적 거주지: 리비아 문화를 대변하는 **가다메스 옛도시**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 일정 문화권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계획이나 조경에 인간가치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 코이 성당**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특출한 증거; 태국 **아유타야 유적**



4. 인류역사에 중요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 경관유형: 한국 **종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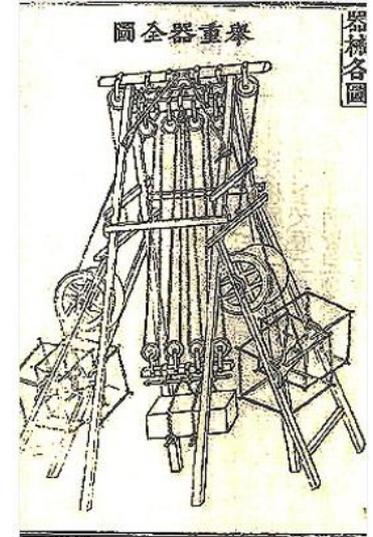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작품 등: 일본 **히로시마 원폭 돔**

읽을거리: 수원화성 - 조선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



시공에 대한 완벽한 기록: <화성성역의궤>
현재 수원화성은 6.25전쟁 때 파손 도니
부분을 복원한 것이다.

전투에 효율적인 시설들: 평지와 산을
연결하여 전투와 방어시설 구성



정조와 정약용, 채제공의 합작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 거중기,
도르래 등

독창적인 디자인: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동그랗게 쌓은 '옹성'이나 변화와
통일성이 있으며, 둘레가 5.4km, 건물이 40개가 넘으나 2년 반 만에 완성됨